

Dubai유, 38.16달러 최고가 행진

석유공사, 사우디 증산의지 불구 테러위협 ... WTI도 44.74달러로 올라

국제유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이프라인에 대한 테러위협과 미국 원유 재고 감소의 영향으로 소폭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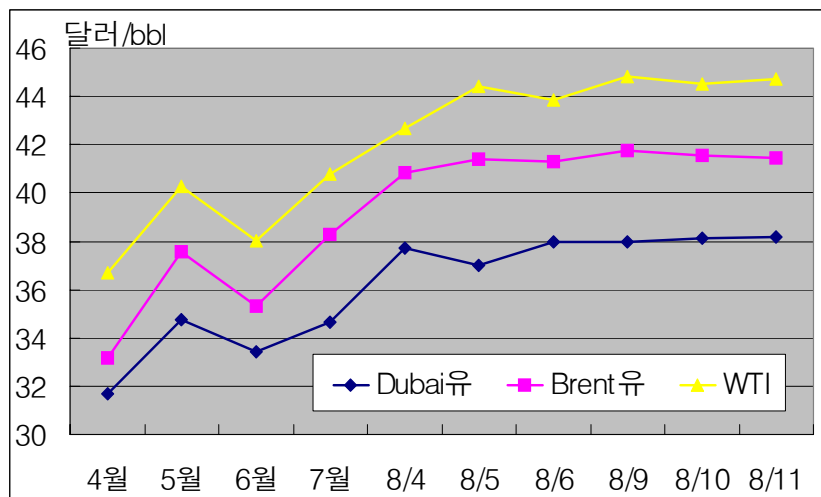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8월11일 거래된 중동 Dubai유는 0.04달러 상승한 배럴당 38.16달러로 사상 최고가 경신 행진을 계속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도 전날보다 0.24달러 오른 배럴당 44.74달러를 기록했다.

뉴욕상품시장(NYMEX)의 WTI 9월물과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의 Brent유 선물가격은 각각 0.28달러, 0.29달러 오른 44.80달러, 41.57달러에 거래됐다.

그러나 Brent유 현물가격은 41.46달러로 전날보다 0.09달러 하락했다.

국제유가 추이(2004)



석유공사는 “국제유가는 사우디 석유장관이 <필요하면 증산할 태세가 돼 있다>고 밝힌 이후 WTI 선물가격이 배럴당 43.30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이라크 테러단체가 남부 석유 파이프라인에 대해 테러를 감행하겠다고 경고했고 미국 원유 재고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반등해 소폭 상승한 채 장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또 허리케인 발생에 따른 미국 멕시코만의 석유생산 일부 중단과 석유수출기구(OPEC) 회원국인 알제리 에너지장관이 사우디의 증산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 발언도 국제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화학저널 2004/08/13>